

# 블랙핑크·몬스타엑스, 기후변화 대응~반부패 행동 나선 이유

K팝 아이돌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커지면서 환경·부패 등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캠페인의 얼굴로 나서고 있다.

K팝 간판 걸그룹으로 떠오른 '블랙핑크'는 최근 공식 SNS 채널에 자연 서식지가 사라져가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소식을 전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200여 국가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행동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11월 영국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다.

블랙핑크는 "기후 변화는 범(汎) 지구적 과제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라며 팬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떠오르는 한류 그룹 '몬스타엑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초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홍보대사로 나섰다. 140여개국 3000여명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각국의 반부패 최전선 노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 청렴 전략을 모색한 자리다.

국민권익위는 몬스타엑스가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으며,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지하는 '#TOGETHERBAND' 캠페인에서 평

유니세프 협업... '선한 영향력'

확대 폭발 기점은 '방탄소년단'

기획사, 정치적 도구 이용 우려

하지만 소수자 연대엔 목소리

화·정의·제도에 대한 목표인 'SDGs 16' 홍보대사로 활동해 온 점 등을 이유로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몬스타엑스는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홍보대사로 선정돼 너무 영광스럽지만 조금은 무거운 타이틀이라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우리 멤버와 문베베, 가족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시작으로 K팝 아이돌 '선한 영향력' 확대

K팝 아이돌의 '선한 영향력' 확대의 폭발 기점이 된 그룹은 누가 뭐래도 '방탄소년단'(BTS)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7년 11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세

계 아동 및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유니세프의 '#ENDviolence' 캠페인에 나섰다.

동시에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도 시작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 회복을 시작으로 타인을 포용하고, 더 나아가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 캠페인이었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UN 총회 단골손님도 됐다. 지난 2018년에는 '자신을 사랑하자'는 '러브 마이셀프'를 주제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미래세대를 위해 연설했다.

방탄소년단은 K팝에 건강하고 진지한 이미지를 심어준 팀이다. 이전까지 K팝은 화려한 외모와 무대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전 영국 유명 밴드처럼,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메시지가 사회적인 호소력까지 담보하면서 팬덤을 구축했고 다른 K팝 그룹들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됐다.



자연스레 국제기구들은 선한 영향력을 글로벌한 팬들에게 전할 수 있는 K팝 그룹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기에 이르렀다.

팬덤 결집 강력한 K팝, 정치적 이용도... 기획사는 신중, 소수자 연대는 환영

K팝 팬덤 결집력과 화력이 대단하다보니, 일부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이용한다.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 K팝은 탈정치적이다. 아이돌이든 기획사든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편향되지 않고, 남녀노소 골고루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창기에 세계 각국에 소개될 때 K팝은 '미아너한 장르'였다. 마

니악한 팬들 위주로 퍼져나가고 불렀다. 그래서 자연스레 저항, 연대의 이미지가 쌓였다.

몇년 새 홍콩 시위, 태국 시위 그리고 심지어 미국 대선 트럼프의 유세 현장 방대 등에 K팝이 등장한 이유다.

하지만 K팝 기획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얽히는 것이 조심스럽다.

예컨대 최근 중국 내 애국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네티즌들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의도치 않게 큰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다.

다만 방탄소년단과 빅히트가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캠페인에 동참한 것에서 보듯, 대의가 분명한 사안에서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며 균형감을 잡

아고 있다는 편이 나온다.

한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변질 우려가 없는 선에서 아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존중해주려고 한다"면서 "그런 성향이 음악을 만들거나 팬들을 대할 때 자연스레 메시지를 담은 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은 기획사의 산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관성이 크지 않아 보이던 분야와 K팝이 만나기도 한다. 몬스타엑스는 문화재청, 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알리미로 활동했다.

단발성이 아닌 6개월에 걸쳐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두루 돌았다.

이 과정에서 팬덤 문베베가 문화유산에 큰 관심을 쏟기도 했다.

## 랜선 '인디 크리스마스 선물', 이승환·이날치·크라잉넛 지원

오는 21~23일 무관중 온라인 중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이 오는 21~23일 랜선 뮤지컬페스티벌 '인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관중 온라인 중계한다.

인디밴드 17팀의 릴레이 무대가 이어진다. 가수 이승환, 국악 기반의 팝 밴드 '이날치', 인디 신의 터줏대감 밴드 '크라잉넛' 등 3팀이 헤드라이너로 나서 인디팬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첫날인 21일에는 사이키델릭 펑크 밴드 데드버튼즈, 팝 R&B 듀오 아차르, 세련된 일렉트로닉 비트가 매력인 구나잇, 깊고 매력적인 음색의 성혜빈, 전통을 기반으로 한 '조선팝'을 선보이는 서도밴드가 무대를 채운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1일 1밤' 신드롬을 낳은 유튜브 5억뷰의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가 헤드라이너로 출격한다.

22일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산 출신 4인조 록밴드 세이수미, 대한민국 헤비메탈의 계보를 잇는 메서

드, 2020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 밴드데일, 펑크, 테크노, 뽕, 힙합 등을 아우르는 별보라, 2013년 결혼식 축가를 시작으로 꾸준히 음악활동을 이어온 인생시장이 출연한다.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은 흥대 인디 신의 상징 크라잉넛이 헤드라이너다.

23일에는 융합한 사운드의 실리카겔, 아이유가 작사에 참여한 신인 체리비, 삼바를 좋아하는 5명이 모여 만든 밴드 화분, 재즈팝 장르 기반의 DOO, 색채감 있는 멜로디의 싱어송라이터 사라플라이, 세련과 낭만을 정취한 5인조 밴드 잭킹콩을 만날 수 있다. 자타공인 '공연의 신(神)' 이승환이 헤드라이너다.

잭킹콩의 보컬 심강훈은 "올해 2월에 정규 앨범이 발매됐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12월까지 잡혀있던 스케줄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뮤지컬페스티벌들도 취소되어 3개 중 1개 무대만 설



수 있었다"면서 "공연이 잡혀도 취소될까봐 눈치만 봤던 한 해의 마지막에 비대면이지만 공연할 수 있어 뜻깊었고 영상 촬영이라는 색다른 작업이 재미있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생겨 기뻐한다"고 말했다.

이번 랜선 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현동 서울독립음악창작소에서 사전 녹화됐다.

축제 기간 매일 5시부터 9시까지 마포문화재단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환경운동연합 후원하기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 2.5단계 첫 주말 관객 15만명 밑으로 떨어져

전 주 주말보다 2만8000여명 감소한 수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 주말 극장을 찾은 관객이 1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흘(11~13일) 동안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14만7000여명에 그쳤다.

전 주 주말보다 2만8000여명 감소한 수치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 극장은 지난 8일부터 오후 9

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1위는 한 지민 남주혁 주연의 '조제'로 누적 관객 수는 7만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2위는 '이웃사촌', 3위는 '도굴', 4위는 '말'이다.

중국 블록버스터 '800'과 조지 클루니가 주연·연출을 맡은 넷플릭스 영화 '미드나이트 스카이' 등이 10위권 안에 진입했으며, 관객 수는 모두 1만명에 못 미쳤다.

## 영화 '미나리', 보스턴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윤여정)·주제가상

국내에서는 내년 상반기 개봉할 예정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영화 '미나리'가 수상 낭보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배급사 판씨네마에 따르면 '미나리'는 최근 보스턴비평가협회에서 여우조연상(윤여정)과 주제가상을 차지했다.

윤여정은 '맹크'의 아만다 사이프리를 제치고 수상해 오스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1일에는 할리우드 저널리스트들이 새롭게 개최한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영화는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미 아칸소주(州)의 농장으로 건너간 한인가정의 이야기를 담는다. 스티븐 연, 윤여정, 한예리, 월 페튼, 앨런 김, 노엘 케이트 조가 출연했다.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상과 관객상, 미들버그 영화제 관객상과 배우조합상, 하트랜드 영화제 관객상 등을 안았다.

영화 '문유량'가보' 칸 국제영화제에 진출하고 AFI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리 아이작 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국내에서는 내년 상반기 개봉할 예정이다.

## 알리 "마음 표현하는 일 미루지 않을 것"...DJ 발탁

KBS는 가수 알리가 KBS 2라디오(106.1MHz) '두근두근 음악엔'의 DJ로 발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31일 가을 개편으로 첫 편성된 '두근두근 음악엔'은 음악 중심의 배경음악(BGM)을 들려주는 프

로그래머이다. 개그맨 이문재의 뒤를 이어 진행을 맡게 된 알리는 "힘든 시간을 보

내고 있을 많은 분들께 작은 위안을 전하고 싶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일을 아끼거나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방송된다.

## 트와이스, 18일 신곡 '크라이포미' 발매

박진영·헤이즈 작사

그룹 '트와이스'가 신곡 '크라이포미(CRY FOR ME)'를 오는 18일 오후 2시에 발매한다.

지난 6일 열린 음악 시상식 '2020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2020 Mnet Asian Music Awards)에서 최초 공개된 이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곡이다.

해당 무대 영상은 엠넷 공식 유튜브 채널 '엠넷 K-POP'에 게재될 지 일주일도 안돼 조회 수 900만 건을 돌파했

다.

이번 노래는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혼란스러움을 그린 곡이다.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과 인기 싱어송라이터 헤이즈가 작사를 맡아, 양극단의 감정이 공존하는 순간을 노랫말로 풀었다.

트와이스는 신곡 발매 전 14일 공개한 콘서트 필름을 통해 숨은인력을 선사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깊게 내쉬는 숨소리는 긴장감을 불어넣는다.